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대상

삼성전자(주)
Bespoke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Max
25년 연속 수상

Bespoke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Max

더 빈틈없고 더 여유로운 진짜 키친핏

Bespoke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Max



CHECK POINT

- ✓ 좌우 4mm로 키친장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편의성 제공
- ✓ 더욱 넓어진 내부 공간(최대 용량 637L) & 푸드 쇼케이스
- ✓ 냉장고 최초 펠티어 소자 적용한 하이브리드 쿨링
- ✓ 냉장고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신선함을 지켜주는 AI 하이브리드 정온 모드
- ✓ 용도에 맞게 서랍칸을 3가지 모드로 설정해 사용하는 멀티 팬트리
- ✓ 가벼운 터치나 음성 발화로 손쉽게 문을 여는 오토 오픈 도어(자동 문 열림) 기능 탑재



키친핏 모델에 푸드 쇼케이스 적용된 냉장고 첫 공개

삼성전자가 별도 공사 없이 빌트인 가전처럼 가구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는 '키친핏' 냉장고에 '푸드 쇼케이스' 도어를 적용한 'Bespoke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Max'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키친핏보다 내부 용량을 늘리면서 음료나 소스처럼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빠르고 쉽게 꺼낼 수 있는 '푸드 쇼케이스' 도어까지 더했다. 키친핏 모델에 푸드 쇼케이스가 적용된 모델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친핏은 국내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구장 크기에 꼭 맞는 사이즈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옆 공간이 남지 않아 빌트인 가전처럼 설치할 수 있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이 밖에도 도어 회전 반경을 최소화한 도어 힌지 설계로 최소 설치 갭을 구현해 냉장고 좌우에 단 4mm의 틈만 있으면 가구장에 꼭 맞게 설치하면서도 냉장고 문은 90도 이상 활짝 열려 개방성이 좋다. 더불어 도어 선반 깊이가 29mm 더 늘어나면서 내부 수납 공간을 최대 637L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푸드 쇼케이스까지 더해지면서 도어 전체를 열지 않고도 간편하게 음료, 양념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사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잡았다.

AI 기술로 진화한 스마트 냉장고, 편의성과 신선함 모두 잡다

삼성의 기술력이 결집된 AI는 스마트한 식재료와 손쉬운 에너지 관리를 도와준다. 대표적으로 'AI 하이브리드 쿨링' 시스템이 장착됐다. 냉장고 최초로 반도체 소자인 펠티어(peltier)가 적용되면서 컴프레서와 함께 2개의 냉각 엔진으로 작동하여 2가지가 따로 또 같이 가동되면서 내부 온도 변화를 더욱 미세하게 제어해 식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평소 사용 패턴을 감지·분석해 최적의 제상 시점을 자동 감지함으로써 제상 시 온도 상승을 3℃에서 1℃로 최소화해 육류 등 식품 보관 기간 연장을 돕는 'AI 하이브리드 정온 모드'가 적용됐다.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도 대거 탑재됐다. 음성으로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고, 문을 열거나 온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빅스비'를 시작으로, 식품 관리, 제품 제어부터 사진·음악 감상까지 가능한 'AI 홈' 스크린, 냉장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식재료를 인식해 편리하게 관리해 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등 스마트한 기능들이 적용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CEO INTERVIEW

김철기 삼성전자(주) DA 사업부장(부사장)

삼성전자가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더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임직원의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사의 불편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Bespoke AI 가전을 선보이며 'AI 홈(Home)'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각 가전이 AI로 진화한 것은 물론, 전체 기기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알아서 맞춰주는 진정한 AI 홈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전에도 모바일과 같은 스크린을 탑재하고,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로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전사용 경험의 질도 크게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